

# OpenDoors

2019. 12. Vol. 212

박해와 선교현장

**이란 Iran**

오픈도어 12월 캠페인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하나님의 부르심 (4)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쿠바의 젊은 세대가 길을 잃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쿠바교회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고 싶었지만, 대신해서 문화부 장관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누었는데, 그 사람이 쿠바의 기독교 박해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이 언제 쿠바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행적과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경찰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오늘부터 쿠바에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쿠바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 좋습니다. 장관님, 만약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대답했다.

“질문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신중을 기하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떻게겠습니까?” 장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 정도라면 역시 별 문제 없을 것 같군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했다.

“장관님, 러시아 교회가 진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러시아 혁명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신앙심이 없다는 사실이 어찌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혁명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지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신네 교회 사람들은 현실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더군요.”

“자기의 믿음대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장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면 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청중에게 던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들의 질문을 받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자들 손을 들고 나에게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나면, 나는 성경을 펼쳐 들고 신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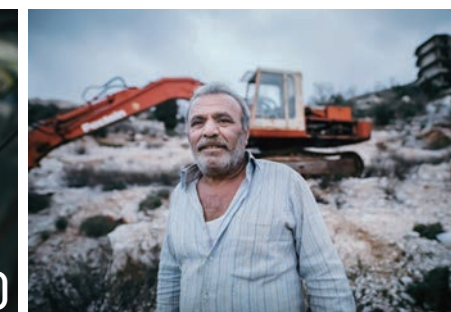
04



06



10



16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VIII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이란 (Iran)

### 10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알레포에서의 끔찍한 시간들

### 13 사건과 소식

### 14 2019년 박해 지도

### 16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사역

굴착기 사업 지원

### 21 오픈도어 박해퍼즐

### 22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 23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OpenDoors 2019년 12월호 | 통권 21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운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의 출애굽기 XVIII

드보라

집에서 나와 집사님 집에 일주일 정도 살았다. 그런데 집사님은 항상 바빴다. 모임도 많고 일도 많았다. 나는 주인 없는 집에 그냥 있기도 미안하고 해서 며칠 머물다가 근처에 아는 동생네 집으로 옮겼다. 다시 인근 도시에 나와서 식당 일자리 구해서 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했지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다. 나 같은 사람을 보살피고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쓰셨던 집사님과 선생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분들의 귀한 희생과 보살핌을 생각하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동생네 집에서도 한정 없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면 계속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오래된 저렴한 집을 세로 빌리고 시작했다. 일해서 번 돈은 그래도 딸 아이를 남편이 돌보고 있었기에 집에 생활비도 보내고 복송 되었을 때의 단련대에서 나를 꺼내준 남동생에게도 보냈다.

한참 그렇게 지내던 중에 중국으로 나온 막내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첫째 동생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막내동생은 중국으로 나올 때는 한쪽 손이 굵은 장애를 가진 상태였고 형의 죽음에 대한 상처로 분노와 악에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족 선생님의 도움으로 처소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집을 떠나 열심히 돈을 벌며 생활하던 중에 남편이 한국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건 전화였던 것이다. 남편은 취업 비자로 남한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겠다고 했다. 애는 아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맡겨놓고 갔다고 했다. 나는 그 말긴 집을 찾아서 딸 아이를 데리고 새롭게 집을 잡아서 살았다. 이제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쫓박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는 잘 연락하고 지내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분주하게 이곳 저곳 이동해가며 지낸 것이 시간이 꽤 흘렀다. 생계를 꾸리기 바쁘다보니 고마운 집사님과도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사님의 남편 분을 길에서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시는 얼굴이 매우 어두웠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으면서도 집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는데 남편 분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 있는거냐고 다그치니 나즈막하게 아내가 복송 당했다고 했다. 천지가 혼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 같은 망나니 같은 년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귀하게 보살펴주시던 집사님이었는데 복송을 당하다니...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그 이후로 집사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다시 그 집사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은 남한에 와서였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특별히 탈북자 강연이 있었다. 같은 탈북자로서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어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 탈북자가 감옥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고 중국의 어느 동네에 있었다가 복송 당해서 자기와 같은 감옥에 갇혔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는 바로 그 집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강연이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그



강연하신 탈북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혹시 그 집사님 성함이 000 아니냐고 물었다. 그분은 그 이름을 듣더니 눈이 툭그래져서 나를 보며 어떻게 그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분께 집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계속 여쭙었더니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 집사님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기독교 간첩으로 소문이 나서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고 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나는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강연하신 분과 나는 한동안 눈물 지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집사님을 함께 추억했다. 비록 이 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와 수고를 베풀 집사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보답하시리라...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혹시나 살아계실지 모르는 집사님의 안위를 위해 기도한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이란



*Iran*



인구: 82,012,000명

기독교 인구: 800,000명(0.98%)

박해정도: 2019 세계 박해 보고서 9위

수도: 테헤란(Teheran)

주 박해 요인: 이슬람, 독재 탄압, 종교 민족주의, 부패와 범죄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이란은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85점을 기록하였는데, 9위에 올랐다.

## 1. 박해의 유형

**이슬람의 압박:** 시아파 이슬람은 국가의 종교이며 모든 법률은 샤리아 법의 공적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

**독재 정치:** 종족과 부족은 삶의 원칙을 내포하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모든 아랍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종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 2. 박해의 주된 동력

이란 정권은 실제로 샤리아 법을 확대시키려고 노력

한다. 정부는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족을 상당한 국가적 위협으로 생각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압력은 보고되고 있다.

## 3. 박해의 결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강력한 박해를 직면한다. 특별히 가족이나 공동체보다 국가로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들을 서구 사회와 국가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



을 취급한다. 기독교 그룹의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핍박을 받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와 같이 취급을 당한다. 아르메니안,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나 하등국민으로 취급 당하며 개종한 신자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라크	WWL 2019	WWL 2018
보고 기간	2017.11 - 2018.10	2016.11 - 2017.10
사망한 기독교인	0	0
공격 당한 기독교인	104	72
체포 당한 기독교인	67	69
공격 당한 교회	20	17
공격 당한 기독교인 자산	41	25

## 4. 현재 상황

• 기독교인들이 비신자들에게 신앙을 전하거나 나누는 것은 불법이다. 무슬림들은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전도를 하거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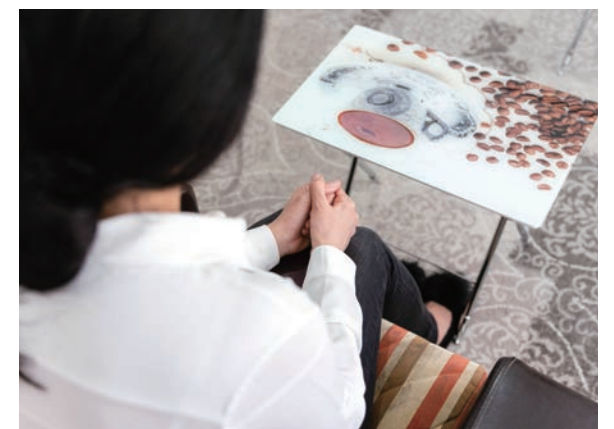
을 하는 경우 교회 건물은 당국자들에게 폐쇄를 당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배신자로 취급 당하고 이란의 법률이 정한 종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샤리아 법에 의해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유산상속의 권리를 빼앗기고, 무슬림으로 이슬람 법에 순종할 것을 강요당한다.

• 무슬림 배경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젊은이들이고 이들은 훈련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을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주로 기독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이란의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세기 이슬람이 이란에 전파되었을 때보다 더 성장하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찾기 힘들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얻기 힘들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기도 힘들다.

## 5. 박해 사례

•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기간 동안 최소 67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다. 특히 개종한 신자들은 조사를 받았고 오랜 기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은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 몇몇 가정교회들은 “2019 보고서” 기간 동안에 습격을 당했다. 공격 당한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보고서 기간 동안 몇몇 기독교인들은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은 국가안전 요원들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모임과 장소에 참여했다고 부모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보고는 자신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고 사

회적 지위나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사건과 인터뷰 1

# 터키 군대의 북부 시리아 침공

북부 시리아는 다양한 종류의 소수민족과 종교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한 쿠르드 족(Kurdish)의 주요 거점이며, 상당수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쿠르드 족 가운데는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도 이 지역에 있다. 지난 10월 10일 이른 시간에 터키 군대는 시리아 북부 시리아 국경지역을 공격하면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를 발표했다.

첫째, 쿠르드 족 민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을 점령하여 "안전지대"(safe-zone)를 국경지역에 구축한다.

둘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터키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으로 이주시킨다.

현재까지 군사작전과 파괴가 기독교 공동체의 탄압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리아 북부 기독교 공동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폭격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소 20개 이상의 마

음이 터키군에 점령되었다. 터키 군대의 공격으로 북부 시리아에는 4-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악화되는 공격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북부 지역을 떠나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터키군과 시리아 이슬람 과격파가 합세하여 이슬람의 명분으로 파괴와 살상을 정당화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수감되어 있는 과격파 테러리스트 군인들이 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독교인들의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터키로 피난했던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귀환 계획은 종족 이주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쿠르드 족이 거주하던 지역에 이슬람의 특정 세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커다란 탄압과 손실을 의미한다.

## 1. 오픈도어는 북부와 동부 시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현지 사역자들과 사역 교회들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터키의 공격이 시작될 때까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음식을 나눠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운 겨

울을 나기 위한 구호품을 공급하고, 다양한 훈련과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제공되고 있다.

## 2. 오픈도어의 사역은 중단될 수 있는가?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물론 사역은 멈출 수도 있다. 현지 사역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먼저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오픈도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구호, 목회적 지원, 그리고 즉각적인 트라우마 상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그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3. 터키 군대의 침공이 북부 시리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전쟁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으면 그들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 지역 타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호는 아직 받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곳 기독교인들은 단지 전투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면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군인들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 서기를 기대합니다.



## 4. 북부와 동부 국경지역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 말키에(Malkieh)에는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 “최근 도시 주변에 엄청난 공중 폭격과 포격이 있었다. 소리가 굉장했지만 말키에 병원에 사상자는 즉각 보고되지 않고 있다.”

\* 카미슬리(Qamishli) 지역  
“복음주의연합교회(Evangelical Alliance Church)의 조지(George) 목사가 국경에서 폭격이 많이 있었고 집들이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쿠르드 족 그리스도인 가족을 데려와 폭격으로 인해 본인 집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 동북 시리아 하사카(Hassaka)에 약 25,000-3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조지 목사는 그 곳에 사는 한 시리아 여인을 알고 있는데, 폭탄이 그녀의 집으로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쳤고,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남편 파디 하브수노(Fadi Habsouno)도 다쳤지만 현재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남편 파디는 이웃들이 사망했음을 목격했다.

\* 코바니(Kobani)과 아인 알 아랍(Ain Al-Arab) 지역  
현장 사역자 중 한 사람은 두 명의 쿠르드 족 신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폭격과 무력 충돌이 아주 심했고, 국경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해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의 가족들이 코바니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무슬림 배경의 어느 쿠르드 족 목사는 쿠르드 족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쿠르드 족에게 세 번째 피난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알레포(Aleppo)에서 아프린(Afrin)으로, 두 번째는 아프린(Afrin)에서 임시수용시설로, 세 번째는 현재 대피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 스토리 1

## 알레포에서의 끔찍한 시간들

### 1. 유아복 가게가 일하는 여성들

아말(Amal), 가이다(Ghaida), 라미아(Lamia)와 린다(Linda). 이 여성들은 마슈타 알 헬루(Mashta Al Helou)의 시내에 있는 '파필론(Papillon)'이라는 유아복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가게는 완전히 개조되었고, 옷들과 모든 가구들은 마을의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가 지원했다.

어느 현장 사역자는 “이 가게의 큰 장점은 4명의 여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의 자립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리아 재건이 남성보다 여성의 몫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국엔 젊은 여성이 일하고 있고, 이 지역의 미망인들을 위한 4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 프로젝트들은 혜택을 받는 가족들의 생계를 충족시키며, 그 가정들의 필요한 수입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 알레포로 귀환한 미용사

알레포(Aleppo)로 귀환한 미용사 로버(Rober)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는 레바논에서 몇 년을 살아야 했다. 내전중인 알레포는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알레포의 미용실은 전쟁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로버의 나이는 45세이다. 그의 코는 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부서졌고, 엘리아스 하다드(21세)는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을 한다.

“알레포에서의 시간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저희가 살



고 있던 지역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차례의 폭격이 일어난 후, 제 형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은 다른 포탄에 맞았고, 즉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직후 알레포는 포위되었다. 물, 전기, 난방용 연료 공급은 중단되었고,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떠나게 되었다. 가족이 시리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가게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았다. “2019년 2월 말, 저는 가게를 다시 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게는 예상보다 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저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충당하고, 가구들과 장비들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가게는 제 가족과 엘리아스를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 스토리 2

## 계속되는 시리아에 대한 테러

**지난** 11월 11일 카미슬리(Qamishli) 지역의 세 곳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아르메니안 교회의 비도얀(Bidoyan)을 포함한 몇 명의 목회자들이 희생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총으로 그들을

사살했다. 비도얀의 경우 매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다.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기독교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비도얀의 장례식은 다음날





인 12일에 치러졌다.

현장 사역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은 누구도 이곳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기독교 공동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충격과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는 다분히 이곳에 피난해 있는 난민들에게 이곳에 정착할 의지를 꺾으려는 경고이며, 이곳에 대피한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전했다.

현장 사역자는 이번에 발생한 연속된 테러로 인해 주민들로 하여금 카미슬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다시 피난길에 오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빼앗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월요일에 희생된 몇 명의 목회자들은 데이 에즈 조르(Deir Ez Zor)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두 명의 신자들도 함께 동승했다. 차량은 십자가 장식을 달았는데, 테러리스트

로 하여금 공격하는 데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아르메니안 정교회의 레본 예기하이얀(Levon Yeghiayan) 사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우리는 이번 행위와 암살을 정죄하며 모든 교회도 이번 사건을 정죄한다...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젊은 목회자 비도얀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매우 위험해졌다... 세 번째 폭발은 내 교회 근처에서 일어났다. 교회의 창문이 부서졌고 세 명의 신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폭탄이 조금 일찍 터졌다면, 하교하던 많은 학생들에게 대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 폭발로 6명이 죽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폭발이 교회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공포심을 주고 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사건과 소식

### 알제리(Algeria)

알제리 당국은 요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에 전국 2개의 교회가 지방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 최근 세 번째 교회가 문을 닫았다. 경찰은 어제 티지 오우조(Tizi Ouzou)의 가장 큰 교회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목사와 몇몇 형제 자매는 관리들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티지 오우조(Tizi Ouzou)에 있는 순복음교회(Full Gospel Church)의 목사인 살라(Salah) 목사는 10월 16일 수요일에 교회가 폐쇄될 것이라는 금요일 발표를 받은 직후 그의 교회 건물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그는 예배 중에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제복차림의 경찰관들과 여자들이 교회 회합 끝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다.

지금까지 14개의 교회는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고 1개의 교회는 그들이 발표한대로 폐쇄될 것이다. 알제리의 시위자 교회인 복음주의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46개 정도이며, 여러 개의 독립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수는 가정교회를 제외하고 50개 정도가 된다. 거의 모든 알제리의 신자들은 무슬림 배경 출신이다. 알제리의 알제리 기독교인 수는 약 35,000명으로 추정된다.

### 에티오피아 (Ethiopia)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며칠간 폭력사태로 인해 70명이 이미 사망하였다. CNN이 보도하기를 19명의 노동자들은 보안군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사망하고 나머지의 사람들도 충돌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은 일찍이 자와르 모하메드(Jawar Mohammed) 급진적인 성향과 그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75만 명이 넘는 SNS 팔

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인종 청소를 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으며, 모하메드가 에티오피아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비 총리(PM Abiy)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잘 다스려야 한다.

###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10월 26일 부르키나 파소에서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다. 무장 강도들이 포베 멘가오(Pobe Mengao) 마을을 습격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강도들은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들을 훔치고 상점을 불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르키나 파소 통신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로렘 주의 룡가(Rounga in Lorum) 지역에서도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인들이 공격의 특별한 표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조성된 적대적인 분위기는 큰 걱정거리이다.

### 북아프리카(North Africa)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모리타니아, 리비아도 포함)의 무슬림 배경의 교회는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젊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새 신자와 젊은 신자들을 돌보는 데 힘쓰며,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처럼 교회들을 빠르게 폐쇄함으로써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성경과 힘의 과정에서도 배우고 있듯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성령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교회는 현재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혼란과 걱정 아래에 놓여 있으며 믿음은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젊은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다.









사역 1

## 굴착기 사업 지원

**59**세의 한나 안토니올레스 나더(Hanna Antonioles Nader)의 삶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 거의 멈춰버렸다. 그는 시리아에서 건설 작업을 하던 중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큰 기계들이 많았는데, 모두 도둑맞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안토니올레스는 다린과 결혼했고 그들은 세 아이가 있다. 안기, 루시, 안토니올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슈타 알 헬루(Mashta Al Helou)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공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그 기계로 새 건물을 지을 장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는 지금 7년 동안 그곳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품을 교체가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이 수입 창출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안토니올스는 이제 그의 기계를 수리할 수 있었다. 기계가 다시 가동되면서 안토니올스는 자신의 의지를 바램을 피력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기계들은 집이나 다른 건물을 짓기 전에 항상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위가 많은 산악 지대에 있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서 공사가 지속되기를... 나는 시리아에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배를 찾고 가족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희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 사역 2 북부 시리아 현장 사역자 인터뷰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하셨나요?

**다음** 날인 토요일에 교회 사람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오전 11시에 모였지요.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의견을 말했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갈 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마리타 마을의 정교회 신부에게 연락했고, 그곳에 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저희를 매우 환영해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수도원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를 준비했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물건들을 사달라고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

으로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겁니다."

###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가요?

저희는 교회로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싼 생활비와 높은 수요 때문에 터키의 공격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난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미망인과 고아들 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성을 체크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많은 가정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 중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공격 이전부터 저희는 이미 그 학생들이 다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환자들에게 약으로, 필요하다면 수술로

지원하고 있고, 암 환자들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는, 집세를 내기 힘든 분들의 집세를 내드리고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 발전기를 설치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노력하지만 무조건 돕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인간으로서 돕기를 원하지만,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저희는 병원을 방문했고, 파괴된 집들을 고치는 것을 도왔고, 빵집을 지었고, 전쟁터에 의료지원을 하고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즉시 식량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지원의 도움을 받나요?

이번 달에 저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250인분의 음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000 시리아 파운드(약 3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200리터의 연료를 미망인들에게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월동준비를 도왔습니다.

### 전 세계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리아 안팎의 교회들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도



시 밖을 지켜주셨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계속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여러 번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모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에 비해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희가 더 큰 건물에 교회를 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나 건물을 위한 지원이 더 생겨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도와주셨고, 특별히 시리아 밖에도 저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함께 하실 겁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2019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북한 캠페인

북한에 복음과 떡을 보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어린이 및 청소년 캠페인

박해의 희생양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습니다.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캠페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여성 사역 캠페인

박해로 남겨진 여성들을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님을 모십니다

### 【주요 업무】

오픈도어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에 맞추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대신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오픈도어 사역을 알리고 기도와 재정후원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일

### 【자격 요건】

- 교육부 인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유수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3~4년 이상 기독교 국제 NGO 또는 국제선교단체에서 개발/행정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
- 영어에 능통하신 분
- 주일 타교회(서울/지방) 출장이 가능하신 분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영문 CV
- 한글/영문 자기소개서
-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통, 이전 근무 단체/기관장 추천서 2통

※ 면접시 지참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및 목사안수증 등 각종 자격증명서 사본

### 【제출 기한】

- 1차: 11월 30일
- 최종: 12월 15일

※ 1차 제출자부터 개별 면접 가능

## 오픈도어박해퍼즐 12월호



1	2		4				
	3						9
					7		
5	6				8		
			10	11			
				12			

### ● 가로열쇠

1. 꿀 찌꺼기를 끓여서 짜낸 물질. 열이 가해지면 잘 녹는다. 구약 시대 두루마리를 묶은 끈을 봉인하는데 사용되었다. 비유적으로 두려움, 낙심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3.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건진 마른 땅을 찾아 내었던 새.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제물 중 하나로 사용했으며, 성령을 상징하는 새로도 소개되고 있다.
5.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염탐하기 위해 12명의 ○○○ 보냈다.
8. 2011년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무슬림으로 여겨진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범죄 조직의 증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성, 기독교인 납치가 만행하고 있다. 2019년도 기독교박해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이다.
10.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 행실이 단정치 못한 음녀 고멜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는 아내를 용서하는 사랑의 선지자이다.
12.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 '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켜 '농부'로 묘사하고 있다.

### ● 세로열쇠

2. 율법 교사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 학식이 많은 스승이나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세례 요한, 바리새파 교사 등에게 사용되었다.
4.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모든 기도의 표준이며 모범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6.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다.
7. 북이스라엘의 수도.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여겼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다.
9. 레위 지파 출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비느하스의 아들.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에스라가 이 사람의 후손이다.
11. 제사장, 레위인, 귀인들의 의복 재료이자 성전의 휘장, 시신을 싸는 수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 지난 달 정답 ■

도	르	가		에	벤	에	셀
		버		라			라
바		나		스			
디		움		도	시	락	
메			디				
오	네	시	모		빌	라	도
			데			오	
						스	

### ■ 11월호 당첨자 ■

전주\* (4300), 장선\* (2883), 김미\* (0624)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12월 10일)



2020

# 머스카슬론(Muskathlon)

##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이슬람 무장세력(Islamic States)으로 황폐화된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와 함께해주세요.

“희망의 센터”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희망을 재건합니다.

교회의 재건 및 제자훈련

전도 및 지역사회 재건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희망의 선물 2019 캠페인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